

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
안건1

한 - UAE 투자 · 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

2023. 1. 31.

관 계 부 처 합 동

I. 현 황

1 순방 성과

- UAE는 한·UAE 정상회담(1.15일 아부다비)시 무바달라 등 자국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300억불 규모 對韓 투자를 발표

< 공동성명 문안 >

- ◇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하는 차원에서 UAE 정부는 한국 경제의 견고함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여 한국의 전략적 분야에 대한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규모의 투자 공약을 발표하였다.

- 양국간 투자협력 구체화의 일환으로 산업은행과 무바달라간 「국가 투자 파트너십(SIP*, 투자 협약)」 체결

* Sovereign Investment Partnership은 무바달라가 러시아, 프랑스, 중국 등 국부펀드, 공공금융기관 등과 공동투자를 목표로 체결하는 투자협력 기본협정

2 UAE의 英·佛과의 투자협력 사례

- (영국) '21년 3월과 9월(모하메드 대통령 訪英 계기) 2차례에 걸쳐 총 100억 파운드 규모의 국가 투자 협약 체결

- ① (당사자) UAE 무바달라와 英 투자청(Office for Investment)
- ② (투자 분야) 1차 투자 협약 체결시 생명과학 분야
→ 2차 협약시 기술·인프라·에너지 전환 분야 등으로 확대
- ③ (투자 방식) 공동펀드 조성 없이 무바달라가 직접 투자, 투자대상 발굴시 영국 투자청과 협업

- (프랑스) '14.3월 공동투자 플랫폼 구축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49억 유로 규모의 투자 협약 체결

- ① (당사자) UAE 무바달라/佛 국책투자은행(Bpifrance)
- ② (투자 분야) 프랑스內 비상장 기업, 헬스케어, 교육, 부동산,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(제한 사항 없음)
- ③ (투자 방식) 펀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가 중심이 되나, 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직접투자도 일부 존재

Ⅱ. 평가 및 대응방향

1 평 가

① 이번 300억불 투자 유치는 전례 없이 큰 압도적인 규모*

* (영) 100억파운드(122억불), (프) 49억유로(53억불), (중) 50억불, (러) 10억불

○ '22년말 현재 UAE의 국내 투자 잔액(약 40억불) 수준 등을 고려할 때, 300억불 투자 규모는 다소 이례적

② 효율적인 투자자금 집행을 지원할 국내 지원 체계 필요

○ 국내 최초 국가간(G2G) 투자협력 사례

③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격적으로 결정

○ 전략적 분야에 대한 300억불 투자 명시

2 대응 방향

① 대규모 자금이 現정부 임기내에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민·관 총력 대응체제 구축

○ 정부·금융기관·산업계·민간전문가 등으로 one team 구성

② 정상 합의를 뒷받침하는 투자 협약 필요

○ 투자 분야, 기간, 방식 등 구체화

③ 한국·UAE가 이번 투자를 통해 서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호 Win-Win의 투자협력 사례 창출

○ UAE측에 투자 대상기업, 관련 금융상품, 주요 발표 정책 등 국내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배려

Ⅲ. 투자협력 추진방안

1 총력지원 체계 구축 : 한·UAE 투자협력 플랫폼

- ◇ 민·관 합동 총력지원(one team) 체계로 한·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
 - (UAE 협의채널) 부총리와 아부다비행정청장(무바달라 CEO 겸임)간 「한·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」 가동
 - (국내지원 채널) 정책협의체인 「UAE 투자협력 위원회」와 민간 주도의 「UAE 투자협력 네트워크」 설치

1. 한·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

- (구성) 부총리/UAE 무바달라 CEO
- (기능) 양국 고위급간 투자협력 방향 등 주요 현안 논의
- (운영) 주요 현안 중심으로 대면 개최를 원칙으로 추진
 - *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양측 실무급 채널도 운영

2 UAE 투자협력 위원회

- (구성) 부총리(위원장), 관계장관, 금융위원장, 산은 회장 등
 - 민간전문가·산업계 등으로 자문단 구성
 - 투자협력 위원회에서 참석, 주요 현안 등 논의·자문
- (기능) UAE의 對韓투자 촉진 지원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
- (운영) 분기 1회 개최 원칙(필요시 수시 개최 가능)

3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

- (구성) 산은, 금융 관련 협회, 산업별 협회 등 민간 주도
 - (금융) 산은(총괄 관리), 한국투자공사, 한국성장금융, 수은, 한국벤처투자, 금융투자협회, 벤처투자협회 등
 - (산업) 에너지·원전·수소·태양광·방산 등 관련 협회
- (기능) UAE의 실제 국내투자시 지원자 역할 수행
- (운영) UAE의 투자 수요 등에 맞추어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(정례적인 회의보다는 과제에 맞게 소그룹 TF로 운영)
 - 총괄 관리기관인 산은이 UAE의 투자수요 등 과제에 맞춰 PEF 협회·금투협·벤처협 등과 소규모 TF 구성·대응

IV. 향후 추진일정

- ① 한-UAE 투자 소통채널 가동
 - 1.26(목) 기재부/무바달라간 채널 가동 → 투자협력 논의 개시
 - 산은/무바달라간 실무 협의도 조만간 개시(영상회의 등)
- ② '23.2월중 제1차 UAE 투자협력 위원회 개최
 - 2월중 투자협력 네트워크 발족
- ③ '23년 상반기중 한·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 개최
 - 對韓 투자 진행상황 등 투자협력 후속조치 진전
- ④ '23년 하반기중 아부다비 현지 IR 등 실시 추진

별첨

수은과 UAE TAQA간 금융협력 MOU 체결

- **(성과)** 이번 한·UAE 정상회담 기간중 수출입은행과 아부다비 국영에너지회사(TAQA)간 금융협력 MOU 체결

* 영문명 'Abu Dhabi National Energy Company(TAQA는 아랍어로 '에너지')

- 에너지·수자원 등 신규사업 발굴 협력, TAQA/국내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등 협력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

< TAQA 개요 >

- ◇ 아부다비 전력 및 수자원 부문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'05년 설립된 상장법인으로 아부다비 정부가 지분의 98.6%를 보유한 국영 수·전력 회사
- ◇ 약 25GW 규모의 전력 생산 및 1,064MIGD* 규모의 담수 생산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, 10만km 이상의 송배전망 및 파이프배관 네트워크 보유

* Million Imperial Gallon per day (1 Imperial Gallon은 약 4.5리터)

- **(의의)** 중동內 핵심 발주처중 하나인 TAQA와 MOU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UAE 수주 활성화* 기대

* 누적수주액(억불, '22년 기준) 1위 사우디(1,562), 2위 UAE(832), 3위 쿠웨이트(489)

* 현재 초고압직류 해저 송전망 사업(총사업비 39.5억불, 사업기간 48개월)을 수주한 한전 사례가 유일('21.12월) → 수은이 12억불 금융조달 실시

- 이를 통해 新중동 붐 실현, '27년까지 年 500억불 수주 달성 등 새 정부의 인프라 수주 활성화 목표에도 기여

- **(향후 계획)** 수은-TAQA간 중장기적 기본여신약정(F/A)* 추진

* Framework Agreement: 주요 발주처와 지원한도, 절차 등 금융지원 조건을 사전에 확정하여, 우리기업의 수요 발생시 신속하게 발주처에 금융지원

-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*와 같이 기본여신약정(F/A)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분야 수주 기회 선점

*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는 '22.1월 수은과 50억불 규모의 F/A 既체결

※ 통상적 F/A 체결에는 1년 이상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인 검토 필요

- UAE 및 중동內 다른 공공 발주기관과의 협력 확대 도모